

## VI.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 VI.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우리 민족 고유의복의 기본형은 대체로 襦·袴·裳·袍를 중심으로 여기에 冠帽·帶·靴 또는 履가 첨부되는 형태이다. 유는 「저고리」로서 上衣이며, 고는 「바지」, 상은 「치마」로서 下衣이다. 또한 머리에는 관모를 쓰며, 허리에는 대를 띠고, 발에는 화 또는 履를 신어 의복의 형태를 갖추고, 그 위에 「두루마기」로서의 포를 더함으로 寒帶性 衣服 즉 北方 胡服系統의 의복을 나타내고 있다.<sup>1)</sup>

삼국시대에는 선사시대에 입었던 옷의 기본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복식의 원형이 마련되었고,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중국의 漢六朝 복식과 唐制 복식의 영향으로 중국양식이 많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복식제도는 왕실과 귀족층 일부의 관복과 예복에만 국한되었으며 그들도 보통 때는 우리의 전통 옷을 입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살펴 보면 머리에 관모를 쓰고, 저고리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직선으로 교차시켜 여미는 깃(直領) 형태였다. 또 깃·부리·도련에는 다른 천으로 襟을 두르기도 하였다. 바지는 대부분 홀태바지형이며 양복바지와 같은 窮袴, 가랑이가 넓은 廣袴, 잠방이와 같은 바지도 있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끝단까지 잔주름이 잡혀 있으며, 두루마기는 무릎 아래로 내려갈 만큼 길고 저고리와 같이 선을 돌렸다. 신은 주로 목이 긴 靴를 신고 목이 없는 고무신 형태의 履도 함께 신었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복식은 고구려·신라·백제가 대체로 비슷했음을 여러 문헌, 벽화, 출토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敎文社, 1991), 18쪽.

## 1) 의생활의 기본구조

## (1) 관모와 머리모양

우리 나라 冠帽의 원시형태이면서 기본형태는 「巾」이다. 이것은 원래 머리가 흘러내리는 것을 감싸는 형태로 網巾과 같은 것이었다. 그 모습은 《唐書》東夷傳에 나오는 巾幘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옛 기록에 보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관모는 幘과 折風이었으며, 책은 貴人계급이 착용한 것으로 鳥羽冠·金銅冠 등도 이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삼국시대에는 건괭·갓·금속관 등의 다양한 관모가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 여자의 首髮法은 《海東歷史》에 ‘부인의 얹은머리’와 ‘미혼녀의 땡은 머리’로 구분하였고, 고분벽화에서는 푼기땡머리·쪽머리·얹은머리 등 다양한 머리형태를 볼 수 있다. 남자의 머리모습은 약수리 벽화와 안악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데, 쌍상투와 외상투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

## (2) 저고리(유)

저고리는 남녀와 상하가 모두 착용한 옷옷으로 삼국시대에는 襦라고 불렀다. 유에 대하여 옛 문헌에는 黃襦·長襦·大袖衫·復衫·衫筒袖·尉解·筒袖·衫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sup>

저고리 형태를 보면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소매는 통소매이며, 깃·여밈·소맷부리·도련에 선을 들렀으며, 허리에는 띠를 들렀다.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소매의 길이와 선의 文樣·色·옷감(衣次) 등에 있었던 것 같다.

저고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表音은 「위해」로서, 임진란 전에는 「우티」였고, 현재 「우치」·「우태」·「우티」등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언도 이 위해에서 나왔는데, 「저고리」라는 표현은 世宗 2년 元敬王后 選奠儀에 「赤古里」라 하여 처음 나온다.<sup>3)</sup>

2) 李如星, 《朝鮮服飾考》(白楊堂, 1947), 122쪽.

3) 《世宗實錄》권 7, 세종 2년 9월.

## (3) 바지(고)

袴는 《說文》에 經衣라 하고 《釋名》에는 두 다리 가랭이가 각각 걸터앉게 나누어져 있는 것<sup>4)</sup>이라고 하여, 오늘날의 양복바지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우리말로써는 현재 「바지」·「고이」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옛 문헌에는 袴·靑錦袴·赤袴·綾袴·窮袴·太口袴·大口袴·袴大口·褐袴·赤黃袴·禪·柯半 등의 용어가 나온다.<sup>5)</sup>

고구려 벽화를 보면, 신분에 따라 바지통·색·길이에 차이가 있는데 貴人들은 넓은 바지를 입고, 下庶人은 통이 좁은 잠방이형의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여자들은 바지를 겹옷으로 입기도 하였고, 속옷으로 착용한 모습도 보인다. 백제의 바지는 대체로 고구려와 같았으나 〈梁職貢圖〉에서 「百濟國使」가 착용한 바지는 단에 선이 둘러져 있고 바지통도 넓고 풍성하나 대님을 묶지 않았다. 신라의 경우는 斷石山 공양상의 廣袴와 토우 부부상의 궁고에서 바지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바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鄭麟趾가 「把持」라고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sup>6)</sup> 袴를 이 호칭으로 대신하게 된 것은 그 이전의 일일 것이며, 어쩌면 저고리라는 명칭에 대응하여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sup>7)</sup>

## (4) 치마(상)

「치마」는 裳 또는 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說文》에 보면 상은 下裙이라 하고 군은 下裳이라 하여 그 뜻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釋名》에는 군이 상보다 幅을 더해 美化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상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허리부터 밑단까지 잔주름이 있었고, 밑단에는 일종의 裝飾緣을 붙였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귀족층은 폭이 넓은 치마를, 하층민은 폭이 좁은 치마를 착용하였으며 치마 밑에는 반드시 바지

4) 《大漢和辭典》권 8(大修館書店, 1985), 1048쪽.

5) 李如星, 앞의 책, 128쪽.

6)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아세아문화사, 1973), 174쪽.

7) 柳喜卿, 앞의 책, 23쪽.

를 입었다.

상을 치마로 표현한 첫 기록은 世宗 2년 元敬王后 選奠儀에 赤古리와 함께 「赤尔」·「襪裙」이 있는데<sup>8)</sup>, 赤은 「터」이고 「尔」는 마여서 「터마」이고, 이 「터마」가 「치마」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閑中慢錄》에서 보면, 「眞紅호오프 文緞치마」라 하여 이 때에 와서는 상이 「치마」로 불리우게 된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 (5) 두루마기(포)

두루마기 즉 袍는 저고리와 바지 위에 입던 겹옷으로 남녀상하가 모두 착용하였으며,<sup>11)</sup> 방한과 의례적인 용도로 입었다. 포에 대하여 옛 문헌에 衣袍·大袖紫袍·紫大袖袍·方袍·表衣 등의 용어가 있다.<sup>12)</sup>

포는裘 즉 가죽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는 본디 북방계 민족이 방한을 위해 상고시대부터 입던 옷으로 중국에서는 周代에 입기 시작했고,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함경도에 개가죽 두루마기의 유물이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짐작케 한다.

《三國志》부여전의 白布大袂袍로 보아 우리 민족이 부족국가시대부터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귀족층에서는 소매가 넓고 길며 여밈은 직령교임식이고 깃·도련·수구에 선이 둘러진 것을 입었고, 허리에 는 대를 땀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마기라는 명칭은 두루막혀 터진 곳이 없다는 데서 나온 순수한 우리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두루마기는 고려시대에 白苧袍로 이어져 왕실과 귀족관료 및 평민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의관제도를 따르면서 帖裏·裾胡·道袍·中致幕·氅衣 같은 형태로 발달하였다.

8) 《世宗實錄》권 7, 세종 2년 9월.

9) 金東旭, 앞의 책, 178쪽.

10) 金東旭, 앞의 책, 179쪽.

11) 《三國史記》권 33, 志 2, 服色.

12) 李如星, 앞의 책, 133쪽.

13) 柳喜卿, 앞의 책, 26쪽.

## (6) 대

帶는 치마·저고리·두루마기에 두르던 띠로 金玉製·皮革製·角製·布帛製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등이 있었다. 옛 문헌에 나타난 대로는 銀帶, 金鉤革帶, 白韋帶, 白皮素帶, 紫羅帶, 素皮帶, 紫·皂·赤·靑·黃·白帶, 紅裡, 鍍金鈐帶, 腰帶, 鈐帶, 金·銀·銅·鐵腰帶, 繡組帶, 羅·綾·絹帶, 金銀絲帶, 烏犀帶 등이 있다.

馬形帶鉤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대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사용한 듯하다. 삼국시대에 이르면 대는 단순히 의복을 정돈하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품계를 구분하고 수식하는 목적도 띠게 되었다. 고구려에서의 대는 베나 비단 종류로 만든 布帛帶였으며, 귀인은 폭이 넓고 서민은 폭이 좁으며 천민은 실을 꼬아 만든 絲組帶를 사용했다. 백제는 대의 색을 달리하여 품계를 구별하였으며 신라에서는 여기에 금속장식을 더하여 사용했다. 삼국의 장식적인 대의 풍속은 고려초까지 이어졌다.

## (7) 신(이·화)

신은 목이 짧은 履와 목이 길고 밑창이 두꺼운 靴로 나눌 수 있다. 《三國史記》에 紫皮靴·烏皮靴, 《舊唐書》에 赤皮靴·烏皮靴 등의 기록이 있으며, 쌍영총 후실 벽화에 목이 긴 화와 무용총 수렵도의 기마인이 신은 화를 볼 수 있다.

부여의 草鞮, 마한의 草鞬·草履 같은 신은 오늘날 고무신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에서는 왕이 烏革履를 신었다고 하며, 일반인은 어떠한 신을 신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상하의 구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신라에서는 화와 이를 함께 신었는데, 실제 飾履塚에서 출토된 많은 금동리들은 당시의 발달한 신의 문화를 알려주며, 금속·풀·천·나무 같은 다양한 재료로 신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를 「洗」<sup>14)</sup>라 하였다고 한다.

14) 《梁書》권 54, 列傳 48, 東夷, 新羅.

《南史》권 79, 列傳 69, 東夷, 新羅.

## 2) 고구려의 의생활

삼국의 의복이 비슷하였음은 문헌자료<sup>15)</sup>와 회화·유물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에서 일찍부터 여러 문화를 수용하여 다른 나라에 전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後漢書》東夷傳, 《三國志》魏書 동이전, 《梁書》諸夷傳, 《南史》동이전 등의 고구려조에는 “시월에는 동맹이라 일컫는 제천을 위한 공회가 있어, 이때의 의복은 모두 繡錦·金銀으로 장식했으며, 大加主簿는 머리에 無後幘을 착용하였고, 小加는 折風弁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北史》열전, 《周書》異域傳, 《隋書》동이전 등의 고구려조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 弁과 같은 折風을 썼으며(《수서》에는 皮冠), 士人은 여기에 二鳥羽를 꽂았는데 특히 貴人의 冠은 蘇骨多라고 하여 紫羅로 만들었으며 金冠으로 수식하였다. 그리고 의복은 大袖衫(《주서》에는 袖衫)·大口袴를 입고 素皮帶를 띠었으며 黃革履를 신었다. 또 부인의 裙襦의 거수에는 모두 선을 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新唐書》동이전에는 “王服은 五采服이며 王冠은 금테를 두른 白羅冠이었고 여기에 金釧를 장식한 革帶를 띠었으며, 大臣級은 青羅鳥羽冠, 일반 官人은 絳羅鳥羽冠에 모두 금은을 장식하였고 의복은 筒袖衫·대구고 위에 白韋帶를 띠었으며 黃革履를 신었다. 그리고 庶人은 褐衣를 입고 弁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巾幘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 (1) 관 모

고구려 冠帽에 관해서 기록에 나타난 바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16)</sup>

15)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16) 李如星, 앞의 책, 74~76쪽.

〈표 1〉 계급에 따른 고구려 冠帽

史書 \ 階級	王	貴 人 大官人	官 人	庶 人
魏 書		無後幘	折風巾	
後 漢 書		無後幘	折風巾	
南 齊 書		折 風		幘
魏 書		鳥羽折風弁		折風弁
北 史		鳥羽折風弁	紫羅蘇骨	折風弁
南 史		無後幘	折風弁	
周 書		紫羅蘇骨	鳥羽蘇骨	
梁 書		無後幘	折風巾	
隋 書		鳥羽冠	紫羅冠	皮 冠
通 典		無後幘	折風巾	
舊 唐 書		青羅鳥羽冠	絳羅鳥羽冠	弁
新 唐 書	白羅冠	青羅鳥羽冠	絳羅鳥羽冠	弁
翰 苑		金銀鹿耳無後幘		折 風

## 가. 책

《說文》에 보면 머리에 巾이 있는데 이를 幘이라 한다 하였고, 〈방언〉에는 首髮을 덮어쓰우는 것을 幘巾・承露, 혹은 覆幘이라고도 한다 하였으며 〈急就篇〉의 註에는 책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여 감추는 것이라 하였고, 〈廣雅〉에는 책은 덮고 맺는 것이라 하여 간단한 頭巾상의 冠帽임을 나타내고 있다.

武梁柯人物像을 통해 살펴보면, 책은 우리 나라 暖帽의 하나인 「남바위」 형상과 비슷한 것으로 종전의 단조로운 頭巾型和 다르게 머리를 엄격하게 엄폐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sup>17)</sup> 고구려의 책은 「無後」라 하였고, 중국의 책이 가지고 있는 「收」 즉 後垂의 형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大加主簿, 즉 貴人・大官階級이 주로 착용하였고, 서민계급에서는 거의 착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그 예가 많지 않다.<sup>18)</sup>

17) 《後漢書》志 30, 輿服 下.

18)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이화여대출판부, 1989), 55쪽.



## 나. 절풍(변·소골)

折風은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그 형태가 弁과 같다 하였다. 우리 말로는 변을 「곶갈」 또는 「고갈」이라고도 하는데 「곶」은 즉 尖角을 말하고 「갈」은 즉 관모를 의미하여 정상이 뾰죽한 관모라는 뜻이며, 이것은 중국의 변의 형상과 대개 일치하는 것으로, 그 유사점을 閻立本筆 帝王圖 隋煬帝像에서의 변, 《三才圖會》에서의 皮弁 및 武弁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周書》와 《北史》에서 보면 蘇骨이라는 것이 있다. 《주서》 異域 高麗條에 의하면 소골은 丈夫 즉 일반 남자의 冠으로 흔히 紫羅를 가지고 만들었고, 官品을 가진 자는 여기에 2개의 鳥羽를 삽식하여 관품이 없는 자와 구별을 하였다 하였으며,<sup>19)</sup> 《북사》 열전 고구려조에는 折風은 특수계급의 관모가 아닌데 士人은 여기에 2개의 조우를 꽂았고 貴子는 자라를 흔히 사용하여 그 관을 소골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소골의 형태가 절풍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절풍-소골의 형태는 고분벽화나 유물에서 찾아보면 쌍영총·무용총·감신총 등에 묘사된 인물의 관모에는 弁狀의 관모가 있고 그 위에 鳥羽를 삽식한 것이 있다.<sup>20)</sup> 또한 근래 각지에서 출토된 白樺皮製의 변상관모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관모라고 추측된다. 양산 부부총에서 나온 華皮冠帽를 보면 그 형태가 금관의 내관과 같아 대체로 烏帽子型으로 되어 있고 정면에는 은제의 矢羽形 前立飾이 삽식되어 있어 벽화에서 보이는 折風弁과 같은 계통의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다. 조우관

鳥羽冠은 관모에 鳥羽를 삽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절풍·皮冠·羅冠 등의 관모 좌우에 2개의 조우를 꽂아 貴賤을 가렸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상에 2개의 조우를 꽂고 있는 관모의 모습은 여기 저기 보이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雙楹塚 羨道 東西壁의 人物圖像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쌍영총 主室 左右壁의 여러 騎馬人物의 관모에서는 2개

19) 《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上, 高麗.

20) 柳喜卿, 1989, 앞의 책, 56쪽.

의 조우 대신 多數의 鳥尾를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조미를 修飾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조우와 조미의 혼용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조우가 金屬化된 수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鎧馬塚 玄室 左方寅方に 그려진 인물의 관모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식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쪽에서 출토된 금속제 관모와 상통되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鳥羽飾의 풍속은 백제·신라에서도 보인다. 《北史》列傳, 《周書》異域 百濟條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朝拜나 祭祀지낼 때 加翅한 관모 즉 조우를 삼식한 관모를 착용하였다 하며, 신라에 있어서는 金冠塚의 금관과 부부총의 金銅冠 內冠 앞부분에 수식된 翼狀의 金具가 있고 이와 동시에 출토된 樺皮製 관모에서도 金屬製 前立飾이 보이고 있어 鳥羽冠帽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 라. 건 귀

《舊唐書》東夷傳 高麗條에 婦人은 머리에 巾幘을 가했다 하였으며, 《新唐書》동이전 高句麗조에도 여자의 머리에 건귀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부녀자의 「쓰개」 즉 머리수건을 뜻한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三室塚 第1室 壁畫, 角觥塚 主室 奧壁 女人圖와 쌍영총 東壁 女人圖에 나타나 있는데,髻의 주위와 상부까지를 완전히 둘러 덮는 방법과 그 주위만을 둘러 쓰는 두 가지의 방법이 보인다.

근래까지 사용되어 오던 「머리수건」을 보면 개성 일원, 황해도, 함경도 지방의 부인은 수건을 角疊하여 머리의 주위 및 상부까지 덮어 뒤에서 매는 것이 보통이고, 평안도의 부인은 수건을 세로 접어 겹쳐 앞머리에서 뒷머리로 감아 매고 끼우고 있어 벽화에 보이는 모습과 일치한다.

#### (2) 의 복

王은 五采服을 착용하였으며, 官人은 大袖衫 또는 筒袖衫에 大口袴를 입었고, 庶人은 褐衣를 입었으며, 婦人은 裙襦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襦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大袖衫·黃衫·衫筒袖·長襦·褐衣 등이 있는데, 이를 보면 대개 袖口의 모양과 명칭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袖의 형태는 左衽에 筒袖인 窄袖形에서 右衽에 廣袖形으로 점차 변화되었던 것 같다. 通溝지방 고분벽화에는 주인공일지라도 대개 착수를 착용하고 있는데, 평양지방 고분벽화의 주인공은 거의 다 袍를 입고 있긴 하지만 광수를 착용하고 있으며 여밈도 우밈으로 넘어가고 있다.

袴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太口袴・大口袴・袴大口・赤黃袴・窮袴 등이 있는데, 대구고와 궁고의 구별은 그 폭에 있고 또 착용자의 신분과도 관계가 있었다. 고분벽화에 나타난 것에서 보면, 궁고는 오늘날의 총대바지, 잠방이형의 통이 좁은 下庶人의 下服이며, 대구고는 貴人들의 하복이었다. 당시에는 여자도 바지를 입은 모습을 벽화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남자와 같이 바지만을 입었고, 儀禮 때에는 바지 위에 치마를 더 입었다고 보여진다.

袍의 경우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분벽화에 포를 착용한 인물이 그려져 있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포의 형태를 보면 直領交衽式이나 直袖型이었고, 저고리에서와 같이 깃・도련・수구에는 襷을 들렀다.

당시 포나 저고리에는 옷고름이 없었고 帶를 사용하였는데 기록에는 銀帶・金釧革帶・白韋帶・白皮素帶・紫羅帶・素皮帶 등이 나온다. 이것은 주로 男子用이었고 고분벽화에는 대개 布帛帶・繩帶類 등이 그려져 있다.

靴와 履에 관하여는 黃革履・赤皮靴・烏皮靴 등의 기록이 보이고, 화는 胡服계통의 것으로 北方族이 신던 것이고, 당시의 형태를 고분벽화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水靴子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南方族이 신던 것으로 보통 가죽으로 만들어 신었다고 보여진다.

이상으로 고구려 복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관모에 있어서는 재료와 수식, 의복에 있어서는 소매의 길이와 폭, 바지통의 폭, 치마의 길이 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호화찬란하였던 오채복에 金銅飾冠을 비롯하여 淵蓋蘇文이 莫離支가 되면서 그 衣服・冠・履에 모두 金綵를 裝飾하였다는 기록에서 당시 귀족의 복식을 짐작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식으로 耳飾에서부터 頭飾・頸飾・指環・腰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 3) 백제의 의생활

백제의 복식제도는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구려의 것에 마한·진한의 것이 가미되어 발달하였는데, 여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복식의 계급적 분화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다.

백제의 의복에 관해서는 《周書》·《北史》百濟條에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袍와 비슷하고 그 소매가 넓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梁書》에는 백제인은袴를 禪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에는 古尔王 27년(260)에 品官의 服飾官制를 제정했고 다음해 왕은 紫大袖袍에 靑錦袴를 입고 金花飾 烏羅冠·素皮帶·烏韋履를 착용했으며 帶의 색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는데 紫·皂·赤·靑·黃·白의 순이다<sup>21)</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확인시켜 주는 유물로는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저고리와 넓은 바지를 입은 琉璃童子像과 四神圖가 있다.

南京博物館 소장품 중에는 百濟國使만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백제국사는 짙은 연두색 긴 저고리에 고동색 선을 袖口·옷깃·섶·밑단에 둘렀으며 길과 같은색 대를 띠었다. 분홍색 넓은바지 부리에는 주황색 선을 대었다.<sup>22)</sup>

#### (1) 왕 복

王服에 관해 《舊唐書》와 《新唐書》東夷傳 百濟條에 大袖紫袍에 靑錦袴를 착용하고 素皮帶를 띠었으며, 烏革履를 신었고, 관모로는 금화를 장식한 烏羅冠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sup>23)</sup> 여기에서 왕의 대수자포란 것은 넓은 소매의 자색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평양지방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총주격 인물의 복식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왕의 관식을 비롯하여 여러 수식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으로는 武寧王陵에서 발굴된 유물이 있다. 당시 발굴된 부장품으로는 두 개의 金冠(金製 透彫草樺紋 冠

21) 柳喜卿, 앞의 책(1983), 69쪽.

22) 金美子,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관한 研究〉(1993), 30~31쪽.

23)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百濟.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百濟.

飾), 왕과 왕비의 청동제 신발, 청동병, 청동수저, 청동항아리, 여섯 귀가 달린 중국 도자기, 엽전, 돌사자, 지식, 중국백자, 못 등이 있다. 이를 보면 왕은 위에서 설명한 의복에 금관을 쓰고, 목걸이·귀걸이에 청동리를 신었다고 보여진다.

## (2) 관인 복식

官인의 복식은 고이왕 27년(260)에 정해진 공복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24)</sup>

<표 2> 백제의 公服制度

官 名	品 級	冠 飾	帶 色	衣 色
佐 平	1 品 官	銀 花	(紫帶)	緋 衣
達 率	2 品 官	銀 花	(紫帶)	緋 衣
恩 率	3 品 官	銀 花	(紫帶)	緋 衣
德 率	4 品 官	銀 花	(紫帶)	緋 衣
扞 率	5 品 官	銀 花	(紫帶)	緋 衣
奈 率	6 品 官	銀 花	(紫帶)	緋 衣
將 德	7 品 官	無	紫 帶	緋 衣
施 德	8 品 官	無	皂 帶	緋 衣
固 德	9 品 官	無	赤 帶	緋 衣
季秀德	10 品 官	無	青 帶	緋 衣
對 德	11 品 官	無	黃 帶	緋 衣
文 督	12 品 官	無	黃 帶	緋 衣
武 督	13 品 官	無	白 帶	緋 衣
佐 軍	14 品 官	無	白 帶	緋 衣
振 武	15 品 官	無	白 帶	緋 衣
克 虞	16 品 官	無	白 帶	緋 衣
平 人	無	無		

24) 李如星이 《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27년조와 《北史》 백제전, 《周書》 백제전에 의하여 만든 표를 전재하였다. 1품부터 6품까지의 대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는데, 《隋書》에는 자대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李如星, 《朝鮮服飾考》, 102~103쪽). 《唐書》에는 관인은 모두 緋(絳)色衣를 착용하고 관에 은화를 장식하도록 하고 일반 서민은 왕복의 자색과 관인의 비(강)색을 의복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 4) 신라의 의생활

신라는 중국 史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고구려·백제의 복식과 같다고 하였다. 다만 “冠을 遺子禮라고 하고, 襦를 尉解, 袴를 柯半이라 하고, 靴를 洗라고 하였다”<sup>25)</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라음을 중국음으로 옮긴 것으로 유자례를 보면 고깔, 위해는 우티, 가반은 고이, 세는 신으로 추정되어 오늘 의 복식용어가 신라에서 나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신라도 의복에 素, 즉 백색을 숭상한다고 하였고, 머리모양은 여자는 辮髮하여 동이고(纓頭), 남자는 黑巾을 썼다고 하였다. 신라의 官制에는 17등급의 官階에 의해 복색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신라의 公服制度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伊伐浪	伊浪	迺浪	波珍浪	大阿浪	阿浪	一吉浪	沙浪	級伐浪	大奈麻	奈麻	大舍	舍知	吉士	大鳥	小鳥	造位
公服	紫衣					緋衣				青衣		黃衣					

여기서 紫·緋·靑·黃의 4색 옷은 公服이었고 평인은 백색이나 흑색의 옷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중국의 제도를 본뜬 冠은 《唐書》에 보이는 흑건, 즉 幘頭였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중국 공복의 빛깔을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복식제도는 우리 고유의 제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천마총 기마인물의 저고리에서는 선이 보이지 않으며 金庾信墓 12支護石像은 저고리의 袖口가 매우 넓다. <梁職貢圖>에 보이는 신라 사신은 소매가 좁고 오른쪽으로 여며지는 저고리에 넓은 바지를 입었다. 바지 부리에는 넓은 다른 색의 선이 둘러져 있는데 고구려·백제의 사신과 같은 服裝이며 冠만 다르다.

25) 《梁書》권 54, 列傳 48, 夷傳, 新羅  
《南史》권 79, 列傳 69, 東夷, 新羅.

이상에서 보면 신라의 상류층 남자는 소매가 좁은 저고리와 넓은 바지를 입고, 서민 남자는 소매가 좁은 저고리와 좁은 바지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민 여자는 소매가 좁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 5) 가야의 의생활

金海貝塚은 이웃 梁山의 패총과 아울러 가야지역의 문화가 매우 발달했음을 알려준다. 이는 첫째 漢代 중국문화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았고, 둘째 弁辰 지방에 鐵이 많이 산출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를 보면 가야의 服飾文化 또한 삼국에 못지 않은 찬란한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三國志》魏書와 《後漢書》에 변진에 관한 기록으로 그 윤곽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茶山 丁若鏞이 지적한대로, 金官伽耶의 金官은 곧 金冠의 뜻일 것이라 한 견해를 따른다면 가야에서도 금관이 王冠으로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복식도 호화롭고 다채로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三國遺事》駕洛國記에 의하면, 금관가야의 김수로왕은 인도공주인 허씨를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이때 왕비가 綾袴를 벗어 산령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가지고 온 錦繡·綾羅·疋段·金銀·珠玉·瓊披·服玩器 등이 이루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sup>26)</sup> 이 기록에 따르면 금관가야의 복식이 멀리 인도의 복식문화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sup>27)</sup>

삼국시대의 복식은 오늘날까지 구조상의 큰 차이없이 이어져왔다. 바지·저고리·포의 구조는 2천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며 冠帽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오랜 전통이었다. 상고복식의 전통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지목되는 금관은 당시 王者가 샤먼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巫冠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 조형은 스키타이 지방에서 전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모는 白樺帽로서 몽고나 고구려의 折風이나 신라의 백화모, 일본의

26) 《三國遺史》권 2, 紀異 2, 駕洛國記.

27) 柳喜卿, 앞의 책, 1989, 48~49쪽.

上古 관모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띠도 革製나 布製로서 당시의 저고리가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는 긴 것이었으므로 허리를 조르기 위하여 필수적이었다. 금관과 어울리는 鈎帶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또한 주술적인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 이 밖에 목에는 목걸이, 팔에는 팔찌,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고 발에는 버선을 신고 가죽신을 신었다. 이러한 복식을 제대로 다 갖춘 왕자의 경우는 매우 찬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복식은 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음으로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그 기본적인 구성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 2. 식생활

삼국은 그들이 처한 자연지리적 환경에 따라 제각기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시기는 철제 농기구의 사용, 농업기술의 발전, 벼농사의 확대 등 농업생산력의 두드러진 발전이 주목된다. 이는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쌀을 비롯한 보리·조 등 주식의 생산이 늘어나고, 주·부식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고구려가 위치한 한반도 북부지역과 만주 일대의 자연지리적 조건은 밭곡식을 재배하는 데 적합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조를 주식으로 이용하였고, 이전 시기의 유적들에서 기장·수수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곡물도 食料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그러나 고구려는 산악지대가 많고 농경지가 적어서 항상 식량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음식의 양을 줄여서 먹는 풍속이 있었다.<sup>2)</sup> 한편 동옥저를 복속시켜 이곳에서 나는 생산물을 날랐

1) 黃海道 鳳山 智塔里(괴 또는 조), 咸北 茂山 虎谷(수수·기장·조), 咸北 會寧 五洞(콩·팥·기장), 平壤 南京(쌀·조·기장·수수·콩) 등.

2) 음식의 양을 줄여 먹는 節食에 대한 것은 《後漢書》권 85, 東夷列傳 75, 高句麗;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梁書》권 54, 列傳 48, 東夷, 高句麗; 《魏書》권 100, 列傳 88, 高句麗; 《南史》권 79, 列傳 69, 東夷, 高句麗; 《北史》권 94, 列傳 82, 高句麗 참조.



다고 전해진다.<sup>3)</sup> 이러했던 고구려도 평양천도 이후에는 철제 농기구의 보급, 농경법의 개선, 火田法의 이용 등으로 농경이 근본적인 산업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백제는 비교적 넓은 평야와 수리시설에 알맞은 하천이 있어 일찍부터 농업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多婁王 6년(32)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sup>4)</sup> 백제의 농업기술은 수리의 방면에까지 이르렀는데 金堤의 碧骨堤, 古阜의 訥堤, 全州의 大堤, 益山の 黃登堤 등이 남아 있다. 백제가 처한 자연환경과 이 지역의 수리시설들은 벼농사가 발달하였음을 보여주어 백제는 미곡의 산출과 쌀밥의 주식화를 일찍부터 진전시켰다고 보여진다.

《三國史記》新羅本紀의 기록을 보면 신라는 초기부터 농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농기사들<sup>5)</sup>과 많은 旱災·蝗災·雨雹 및 서리의 기사들이 그 예이다.<sup>6)</sup> 이외에도 수리시설<sup>7)</sup>과 牛耕<sup>8)</sup>에 대한 기록도 있다. 신라의 주작물은 보리였던 것으로 보이며<sup>9)</sup> 그 밖에 조·콩 등이 있었고 쌀도 재배가 가능하였다.<sup>10)</sup> 신라는 보리농사를 위주로 하여 적지를 택해 벼농사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가야의 합병, 한강유역의 점유를 통해 벼농사에 적합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3) 《後漢書》권 85, 東夷列傳 75, 東沃沮.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東沃沮.

4)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다루왕 6년.

5)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시조 혁거세거서간·파사니사금 3년·일성니사금 12년 ; 권 2, 新羅本紀 2, 벌휴니사금 4년·미추니사금 11년·홀해니사금 9년 등에서 권농 및 농사의 시기를 보장해주는 기사가 보인다.

6) 旱 ; 일성니사금 12년, 홀해니사금 4년, 내물니사금 17년, 눌지마립간 4년 등.  
蝗 ; 남해차차웅 15년, 파사니사금 30년, 기마니사금 11년, 아달라니사금 8년, 조분니사금 8년, 첨해니사금 13년, 홀해니사금 4년, 내물니사금 34년·42년·44년, 실성니사금 5년 등.

雨雹·霜 ; 기마니사금 3년, 아달라니사금 17년, 나해니사금 10년·27년, 미추니사금 11년, 홀해니사금 28년 등.

7)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일성니사금 11년 ;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3년 ; 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8년.

8) 《三國史記》新羅本紀 4, 지증왕 3년.

9)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3년, 기마니사금 3년 ; 권 2, 新羅本紀 2, 나해니사금 27년 ;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4년.

10) 《北史》권 94, 列傳 82, 新羅.

가야는 철의 생산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지만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가야가 위치한 弁辰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벼농사가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sup>11)</sup> 수로왕이 허왕후와 함께 온 뱃사공들을 돌려 보내면서 15명에게 각각 쌀 열섬씩을 주었다<sup>12)</sup>는 기록을 보면 쌀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 및 가야는 모두 농업을 기본적인 생업기반으로 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였다.<sup>13)</sup> 철기문화의 전래 이후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고, 4~6세기경에는 보습·따비·가래·괭이·쇠스랑·낫·삽 등 중요 농기구의 대부분이 정비되었다.<sup>14)</sup> 또한 우경을 비롯한 농업기술의 발달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 永川 葦堤, 벽골제와 같은 수리시설도 축조되었다. 수리시설의 축조는 벼농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고<sup>15)</sup> 당시 자연환경이 적합한 김해일대 평야, 한강유역 평야, 서해안 평야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농업생산의 발전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해진 식료를 활용하였다. 기록이나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곡물의 종류를 보면 벼·조·보리·콩·피·기장 등이 있다. 벼농사의 확대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보리·콩·조 등의 잡곡은 이전 시기부터 계속 경작되었고 자연적 조건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지 못한 고구려에서는 잡곡이 주식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의 稅制를 보면 주로 쌀을 비롯한 곡물로 징수하였는데,<sup>16)</sup> 여기에서도 이런 곡물이 주식이 되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곡류를 주식으로 하여 부식으로는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이 이용되었다. 중국의 기록을 보면 백제와 신라의 오곡·과일·채소·짐승의

11) 《三國志》30, 魏書 30, 東夷, 弁辰.

12) 《三國遺事》권 2, 紀異 2, 駕洛國記.

13) 李春寧, 《韓國農學史》(민음사, 1989), 36~40쪽.

14) 金광언, 〈신라시대의 농기구〉(《신라사회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1987), 289쪽.

15) 權丙卓, 〈신라관개제도연구〉(위의 책), 174쪽.

16) 《北史》권 94, 列傳 82, 高句麗·百濟.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물산·술·음식·약품 등이 중국의 것과 같다고 하였다.<sup>17)</sup> 당시의 채소류로는 고구려에서 千金菜가 유명하였는데<sup>18)</sup> 이는 상치로 보인다. 그리고 《濟民要術》<sup>19)</sup>을 통해서 보면 아욱(葵)·상치(蒿苳)·미나리(芹)·오이(瓜·胡瓜)·가지(茄子)·순무(蔓菁) 등이 이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과일류로는 밤·잣·복숭아와 오얏 등이 기록에 보인다.<sup>20)</sup> 육류는 사냥 또는 축산을 통해 공급되었다. 안악 3호분 동축실의 肉庫를 그린 벽화에는 꿩·돼지·노루 등이 걸려 있다.<sup>21)</sup> 이 벽화에서는 외양간·마구간도 보이며<sup>22)</sup> 기록을 통해 보면 소·돼지·닭·개 등이 사육되었음을<sup>23)</sup> 알 수 있다. 그리고 김해패총에서 발견된 패류<sup>24)</sup>를 비롯하여 고구려가 동옥저에서 낚아온 물고기, 해중 식물<sup>25)</sup> 등 다양한 수산물도 중요한 부식이 되었다.

이렇게 삼국시대에는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과 벼농사의 확대를 통해 식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쌀·보리·조 등의 곡물이 주식이 되었고 부식으로 채소류·육류·과일류 등 다양한 식품이 이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생산의 안정과 풍부해진 식품을 바탕으로 주·부식이 분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부식의 분리는 곡물 조리기술 및 각종 음식의 조리·가공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 나라 일상식의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17) 《周書》권 49, 列傳 41, 異域 上, 百濟.

《北史》권 94, 列傳 82, 百濟·新羅.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新羅.

18) 韓致瀾, 《海東繹史》권 26.

李晔光, 《芝峰類說》권 19, 食物部.

19) 《濟民要術》은 北魏 高陽郡 太守 賈思勰이 530~550년 사이에 저작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에 관한 고전으로 우리 나라의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 10권으로 3권에서 채소의 재배·관리·이용·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百濟; 《梁書》권 54, 列傳 48, 東夷, 高句麗; 《南史》권 79, 列傳 69, 東夷, 高句麗.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나해니사금 8년.

21) 최무장·임연철, 《고구려벽화고분》(신서원, 1990), 497쪽.

22) 최무장·임연철, 위의 책, 42~43쪽.

23)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百濟.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0년.

24) 《大正九年朝鮮古蹟調査報告》(조선총독부, 1920), 44쪽.

25) 《後漢書》권 85, 東夷列傳 75, 東沃沮.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東沃沮.

이러한 식생활에서의 진전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넉넉한 식생활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민들은 조세 및 부역을 담당하여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자연재해는 큰 재난이 되었다. 고구려에서 시행된 賑貸法<sup>26)</sup> 등 기록이 전하는 많은 구휼기사<sup>27)</sup>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은 왕족과 왕비족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지배하였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식생활에도 반영되어 신분에 따른 식생활의 분화 및 계층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왕실의 식생활 모습은 화려한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고구려의 벽화와 《삼국유사》에 실린 태종무열왕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의 양을 묘사한 기록<sup>28)</sup>에서 살필 수 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下戶들이 먼 곳에서 식량·물고기·소금을 낚았고 이를 앞아서 받아먹는 계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삼국의 귀족들은 조세 또는 전리품을 독점하여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반 백성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였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였다.<sup>30)</sup> 그러나 식생활의 분화를 통해 이루어진 귀족층의 음식문화는 식생활 및 식품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삼국시대의 부역시설 및 경리시설들은 고구려벽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안악 3호분과 무용총의 벽화에는 부역이 방과 분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태성리 1호분, 약수리 벽화무덤 등에도 부역시설이 있다. 약수리 벽화의 부뚜막은 아궁이에 굴뚝이 직각으로 구부러져 달려 있다. 그리고 안악 3호분의 부역벽화에서는 여자들이 부뚜막에 시루를 걸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뚜막들은 근래의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부역시설 이외에 디딜방아가 안악 3호분의 벽화에서 보이는데, 한 여자가 발로 방아를 던

26) 《三國史記》 권 16, 高句麗本紀 4, 故國川王 16년.

27)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남해차차웅 15년·일성니사금 12년 ; 권 2, 新羅本紀 2, 나해니사금 31년·홀해니사금 4년 ; 권 3, 新羅本紀 3, 내물니사금 17년 ; 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7년 ;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6년 ; 권 19, 高句麗本紀 7, 안장왕 5년·안원왕 6년 ; 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15년.

28) 《三國遺事》 권 1, 紀異 2, 太宗春秋公.

29)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30)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6년.

고 섰으며 그 아래 한 여자가 키질을 하고 있다. 디딜방아는 평양 역전고분, 요동성 무덤의 벽화에도 보인다. 이외에 안악 3호분의 벽화에서는 우물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육고간·외양간·마구간 등의 경리용 시설도 나타난다.<sup>31)</sup> 이러한 자료들은 이 시대에 식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시설들이 갖추어졌음을 보여준다.

식기로는 토기가 주를 이루었다. 식기로 이용된 토기로 바리·사발·쟁반·굽다리그릇·잔·목긴 항아리 등이 발굴되었다. 출토된 토기들은 주로 부장품으로 쓰인 것이지만 이들을 통해 이 시대 식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토기들은 음식물의 종류·건습 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었을 것이다.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에서는 출토된 실용식기가 비교적 많으나 고구려에서는 출토유물이 적어 그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고구려에서의 모습은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용총 주실 북측벽의 벽화를 보면 3개의 짧은 굽이 달린 큰 대접 위에 과일이 높이 꺾어 있고, 뚜껑이 있는 바리 모양의 그릇, 짧은 굽이 달린 사발, 뚝배기 모양의 그릇, 보시기, 종지와 같은 그릇들이 보인다. 각저총의 실내생활도에서는 잔·사발 등이 개인용 밥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簋豆·簠簋·甗洗가 이용되었고<sup>32)</sup> 신라에서는 버드나무 그릇, 동제 그릇, 질그릇을 사용하였고 한다.<sup>33)</sup> 식생활의 분화는 식기에도 나타났으며 금속기·유리기·칠기 등은 귀족들의 소용이 되었을 것이다.

부엌세간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시루와 솥이다. 이들은 곡물을 조리하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였다. 시루는 곡물을 찌내는 도구로 이전 시기부터 널리 이용되었으며 출토 유물들과 벽화에서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주시 노서동 제138호 고분과 황오동 제4호 고분, 평양시 정백동 등에서 청동제甗이 발굴되었다.甗은 세 개의 발과 두 개의 귀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 다리와 귀가 없어진 솥으로 발전하였다. 가마솥은 고구려의 고분벽화

31) 최무장·임연철, 앞의 책, 34·42~43·119~124·314쪽.

32)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33)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新羅.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에 자주 나타나며 금령총에서는 두개의 쇠술이 출토되었다.<sup>34)</sup> 벽화에서 보면 술은 화덕 위에 놓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곡물조리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식생활의 안정과 분화는 음식의 조리과 가공기술을 발전시켰다. 우선 도정에는 방아가 이용되었다. 백결선생의 이야기에 방아가 등장하고<sup>35)</sup> 벽화에 디딜방아가 보인다. 곡물조리에서도 쌀을 가루로 하여 죽을 쑌거나 찌서 먹던 것에서 발전하여 솥에다 쌀을 끓여 익히는 밥을 짓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시루를 이용하여 떡을 찌는 방법도 계속되었다. 떡에 대한 기록은 儒理王과 脫解王이 떡을 물에 익혀 국으로 왕위를 정하는 이야기에서 보인다.<sup>36)</sup> 떡의 주원료는 잡곡에서 쌀로 바뀌었으며 쌀과 잡곡의 혼합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sup>37)</sup>

그리고 각종 음식이 만들어져 부식으로 이용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상비식품은醬이었다. 장의 원료인 콩은 일찍부터 재배되었고 널리 이용된 곡물이었다. 또한 뚜껑이 있는 壺形土器는 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sup>38)</sup> 통일신라시대의 기록이지만 神文王이 왕비가 될 집안에 보낸 예물에서 장·메주 등이 보이는데<sup>39)</sup>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장 이외에 소금은 조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신문왕의 예물에 들어 있는 꿀과 기름도 조미료로 이용되었다.

생선과 육류의 가공식품으로는 신문왕의 예물에서 脯와 醢를 볼 수 있다. 포는 고기를 통채로 말리는 방식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는 소금에 절여서 만든 음식이었다. 따라서 생선과 육류의 가공과 저장에 말리거나 절이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 장의 가공과 양조에서와 같은 발효에 의한 가공법도 발달하였다.<sup>40)</sup> 또한 음식물의 저장에는

34) 《大正十三年 朝鮮古蹟調査報告—慶州 金鈴塚・飾履塚 發掘調査報告》(조선총독부, 1924), 121~123쪽.

35) 《三國史記》권 48, 列傳 8, 百結先生.

36)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유리니사금.

37) 이성우, 《동아시아속의 고대 한국식생활사연구》(향문사, 1992), 385~391쪽.

38) 윤서석, 〈신라의 음식〉(《신라사회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1987), 207쪽.

39)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3년.

40) 강인희, 《한국식생활사》(삼영사, 1990), 124쪽.

얼음이 이용되었다. 智證王대에 처음으로 얼음을 저장하게 하였다고<sup>41)</sup> 하며 여름에 음식물을 얼음 위에 둔다는 기록도 있다.<sup>42)</sup> 얼음은 결빙기에 천연빙을 채취하여 빙고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식품들이 왕의 예물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상류층에서 이용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음식으로는 술이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술을 잘 빚었다고 한다.<sup>43)</sup> 그리고 백제에서는 곡식이 부족할 때 사사로이 술빚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다.<sup>44)</sup> 술은 발효시켜 만든 곡주였으며 음식 가공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술은 주로 제사에 쓰였으며, 신라에서는 혼례에서 술과 음식을 내었는데 빈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sup>45)</sup> 또한 각종 행사와 모임에서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토기로 된 술잔 및 벽화에 나타나는 술잔들은 발달된 술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계절음식도 생겨났다. 신라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하례식과 함께 연회를 열고 일월신에 제사하였으며<sup>46)</sup> 정월 보름에 찰밥을 지어서 까마귀에 제사하였다<sup>47)</sup>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유리왕대에는 길쌈을 하여 팔월 보름에 승부를 정하고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내었다고 전해진다.<sup>48)</sup> 이들 節日은 지금에도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계절음식이 발달하였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식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많은 부분은 유추를 해야 했다. 또한 이들 자료는 기록에 남아 있거나 유물로 남아 있는 삼국시대 귀족층의 식생활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

41)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智證王 4년.

42)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43)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梁書》권 54, 列傳 48, 東夷, 高句麗.

44)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다루왕 11년.

45)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新羅.

46)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新羅.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新羅.

《新唐書》권 200, 列傳 145, 東夷, 新羅.

47) 《三國遺事》권 1, 紀異 1, 射琴匣.

48)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유리니사금.

서 이러한 자료로 이 시대의 식생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형성된 식생활 문화는 계층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넘나들면서 확대·발전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삼국이 형성한 식생활 문화는 그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기여하였다고 여겨진다.

### 3. 주생활

전설에 의하면 고구려는 B.C 37년에 주몽이 이끈 부여의 일파가 압록강 중류 동가강 환인지방에 자리잡고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이미 B.C 4세기경에 고구려의 선구적인 세력이 결집되어 있었다. 예맥이라고 불리던 것이 그것이다<sup>1)</sup>. 고구려는 그 후 중국과의 항쟁과 교류 속에서 고대국가로의 위치를 확보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고구려의 주생활은 현존하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중국의 문헌과 《三國史記》·《三國遺事》 등의 고문헌, 그리고 고구려의 많은 고분 중 벽화분에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중국의 고문헌 중에서 주택의 기록이 자세한 것은 《三國志》와 《新唐書》이다. 《삼국지》에는 고구려에서 주거를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정했으며 농경 생활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좋은 땅이 부족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궁궐(宮室)짓기를 좋아하였으며, 주거의 좌우에는 큰 건물을 세워 鬼神·靈星·社稷에 제사하였다고 한다. 집에는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를 지었는데 이를 桴京이라고 하며 또한 그 풍속에 혼사가 결정되면 신부측에서 집(大屋) 뒤에 작은 집을 지어 사위가 들게 하였는데 이를 厓屋이라고 하였다<sup>2)</sup>고 한다. 이는 데릴사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장가를 들면 처가집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처자를 데리

1)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一潮閣, 1992), 44쪽.

2)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고 자기 집에 와서 살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당시의 고구려사회가 모계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며 당시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이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궁실·대옥·서옥·부경 등의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건물들의 명칭이나 기능이 다른 것으로 미루어 당시 주생활에서의 기능이 상당히 분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자료가 묘사하는 건물들은 당시 지배계급의 주거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농업을 주로 담당하던 下戶 이하의 양인과 천민은 전시기의 주거생활인 수혈주거이거나 원시적인 지상의 주거생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당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왕궁·관부·佛廬 등의 건물은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민가 즉 일반백성들의 집은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짓는다<sup>3)</sup>고 했는데 이는 지붕을 茨草로 이은 초가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民盛冬作長坑熅火以取煖…”이라는 구절이다. 이것은 분명히 온돌시설과 같은 난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長坑」이란 것이 긴 火道를 가리키는 것은 확실하나 이것으로 미루어 이 난방시설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돌을 표현한 것인지 또는 당시 중국과의 문물교류를 통하여 습득되어진 중국 북부지방에서 성행되고 있는 「坑」 또는 「坑床」을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sup>4)</sup>. 그리고 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한겨울에 장갱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배계층이거나 그와 비슷한 사회·경제력을 가진 계층의 난방방식은 이것과는 달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온돌과 같은 구조없이도 실내에서 기거할 수 있는 화로나 부뚜막을 이용한 난방방법을 사용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난방형식을 추측할 수 있는 고구려의 벽화가 쌍영총에 있다. 이 그림에서는 묘주 부부인 듯한 인물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있다. 이 주인공 부부가 앉아 있는 곳은 고려시대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행하던 「榻」 같은

3) 《新唐書》 권 200, 列傳 145, 東夷, 高麗.

4)金正基, 〈韓國住居史〉(《韓國文化史大系》 4, 風俗·藝術史 上,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7), 152쪽.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 벽화에 묘사된 사람들은 좌식의 생활을 영위했다고 보여진다. 한편 무용총의 벽화를 보면 묘주 부부는 높이가 높은 의자에 걸터 앉아 있고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식기류들도 모두 다리높은 식탁(床)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의 귀족계급에서는 입식과 좌식생활을 병행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듯 당시의 주생활은 쌍영총, 천왕지신총, 대안리 1호분, 안악 1호분, 통구 12호분, 안악 3호분, 약수리 벽화분, 무용총, 각저총, 마선구 1호분 등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다<sup>5)</sup>. 이 중 안악 3호분은 방앗간·우물·부엌·육고간·차고·외양간·마구간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의 건물은 각각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농경생활의 다양화와 생산기술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생활의 다변화는 주거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던 단순한 구조물에서 사회생활의 근거지로서 변화된 생활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전시대의 堅穴住居와 시원적인 지상주거에서는 한棟의 건물에서 모든 주거생활이 영위되었으나 이 시점에서는 각각의 건물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할하고 더 나아가 기능에 맞는 건물을 각각의 독립채(棟)로 구분하여 지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건물과 같이 부속채의 개념이 벌써 도입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생활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사회적·경제적으로 지배계층에 있는 부류에서만 가능했으리라고 추측된다.

백제의 주생활은 현재 남아 있는 유구가 수혈주거밖에 없고 그 이외의 지상주거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문헌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그 문헌자료 조차도 많지 않아 정확한 주생활을 고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아버지가 주몽이라는 사실<sup>6)</sup>로 보아서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남하하여 삼한의 마한지방에 도움을 하여 성장한 것으로 미루어 대개의 주거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를 입증 하듯 《구당서》에 풍토와 산물이 고구려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기록<sup>7)</sup>이 있으

5) 金正基, 위의 책, 152쪽.

6)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며, 《신당서》에도 풍속이 고구려와 같다<sup>8)</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삼국사기》에 온조왕이 궁실을 지었던 일에 대해 “봄 정월에 새 궁실을 지었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았으며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다”<sup>9)</sup>라고 하여 지배계층의 주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塊石이라 하여 스스로 덩혀지는 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sup>10)</sup> 이는 온돌(구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의 長坑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ㄱ자형 구들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철기시대의 수원 서둔동 주거지에서 ㄱ자형 구들이 발굴되었고, 中島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구들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도 구들이 시설되었음은 충분히 입증된다<sup>11)</sup>. 또한 조선시대에 중국인 董越이라는 사람이 쓴 《朝鮮賦》에는 “백제지방에서는 땅에서 뚝 떨어진 높이에 마루를 설치한 집을 짓고 사다리에 의지하여 오르내린다”<sup>12)</sup>라는 기록은 고상식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골의 원두막과 같은 형식의 주거가 아니었나 추측된다. 또한 이것은 만주 집안현에 있는 마선구 1호분에서 볼 수 있는 귀틀집의 고상주거형식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자료들을 고찰해 보면 백제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인 枕流王 원년(384) 이후에는 적어도 고구려와 같은 형식의 주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는 백제의 문화를 보여주는 부여나 공주 근처에서 출토된 유물과 백제인이 지었거나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고 하는 신라의 皇龍寺탑지와 일본의 법륭사 등과 같은 건축물과 당시의 절터·궁궐터 등에서 출토되는 와당·전돌을 보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출토 유물들을 보면 당시의 백제인들의 주생활이 고구려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와 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와로 지붕

7) 《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百濟.

8)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百濟.

9)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1, 시조 온조왕 15년.

10) 《三國遺事》권 2, 紀異 2, 南扶餘 前百濟.

11) 주남철, 《백제시대의 주택》(공산성 성안마을 정비(백제촌 조성) 고증조사보고서, 충청남도, 1991).

12)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기문당, 1993) 47쪽에서 재인용.

을 잇고 살았으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짚이나 띠 또는 새 등으로 지붕을 이은 초가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와 가야의 주생활도 현재 남아 있는 유구는 거의 없고 다만 집모양토기(家形土器)가 출토되어 당시의 주생활 모습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이 이외의 사항은 문헌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집모양토기가 대체로 副葬用, 또는 의식 특히 葬儀禮式에 쓰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모양토기가 당시의 주택이나 주거생활을 반영하지 않고 만든 사람의 독창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제작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신라시대의 집모양토기<sup>13)</sup>는 높이 11.5cm로 고상식의 주거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형태를 살펴보면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맞배지붕을 올린 집이다. 이 집모양토기가 형태 그대로 고상식의 주거형태라면 위에서 언급한 만주지방 집안현에 있는 마선구 1호분의 벽화를 입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隋書》신라전에 풍속·형정·의복이 대체로 고구려·백제와 같다<sup>14)</sup>는 기록과도 부합된다. 지붕의 겉 표면은 다른 집모양토기와는 달리 기와골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초가지붕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는 신라 전성기의 현강왕대에 서울(경주)의 민가 중에 초가가 한 채도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유형의 집은 일반 백성들의 집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야시대의 집모양토기<sup>15)</sup>는 높이 35cm, 길이 36.8cm의 크기로 집모양토기 중에서는 대형에 속한다. 이 집모양토기는 장방형의 평면을 가진 형태로 지붕은 맞배지붕에 기와를 얹었고 처마 끝에는 굴곡을 두어 막새기와를 표현하였다. 집은 전체적으로 3칸인 듯 좌측과 우측에 각각 1개와 2개씩의 창문을 선으로 표현하였고 중앙에는 2짝의 여단이 문을 표현하였다. 이 형태로 보아 좌우는 방으로 추측되고 중앙은 바닥이 흙으로 마감된 부엌으로 추측된다. 이 3칸의 집은 주거공간의 분할로 남녀노소가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확대가 아니라

13) 慶北大博物館 소장.

14)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新羅.

15) 湖巖美術館 소장.

이렇게 집을 꾸밀 수 있었던 기술과 경제력의 발전을 말해 주며, 나아가 이러한 발전이 주생활 문화에 영향을 미쳐 1가구 1실에서 1가구 多室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건축기술은 6세기에 들어 현저하게 발전하였는데 신라는 뚜렷하게 분업화된 기술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국가적인 토목 건축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南山新城碑와 같은 일부 금석문 속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sup>16)</sup>

〈李鍾哲·鄭明燮〉

---

16)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기문당, 1993), 15쪽.